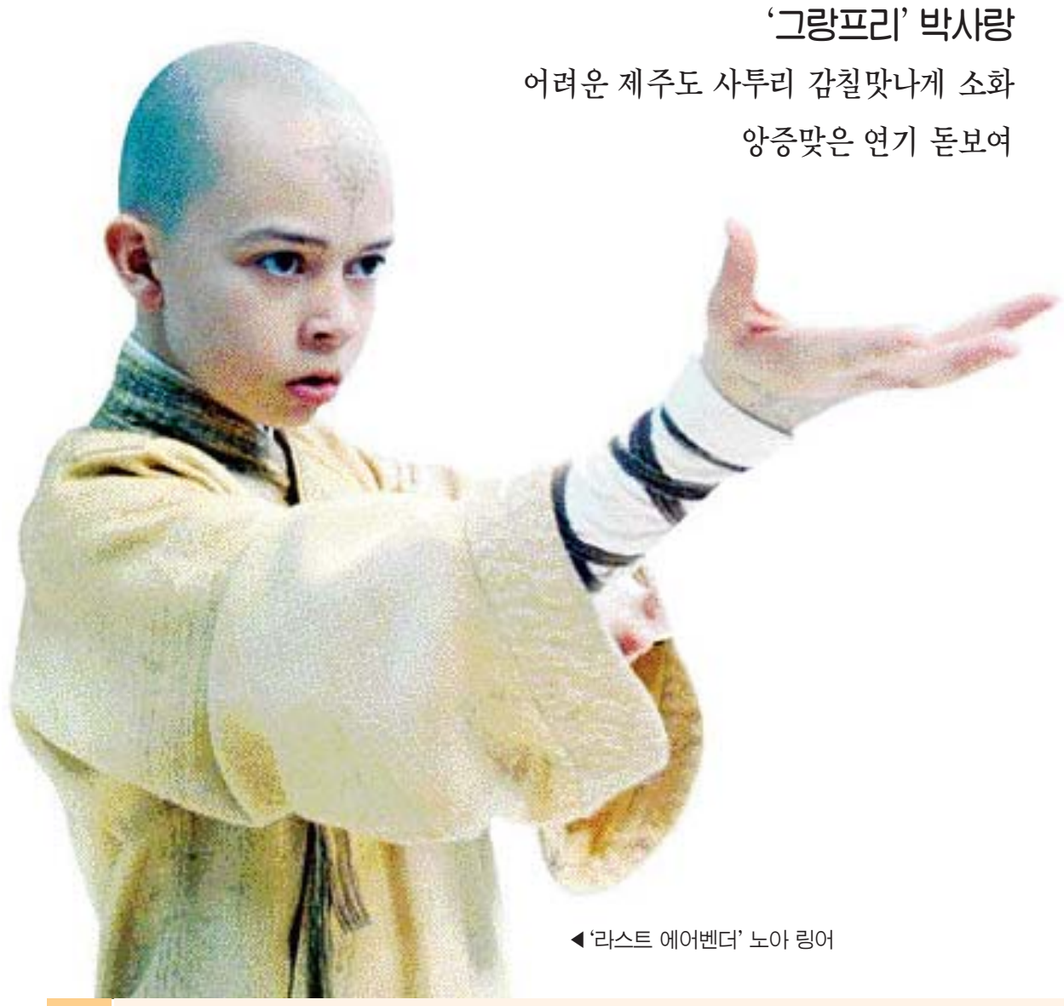
스크린 빛내는 아역배우들 명연기

‘아저씨’ 김새론
원빈에 밀리지 않는 애절한 눈빛 연기 화제
칸 영화제 초청 한국의 ‘다코다 패닝’으로 관심

‘라스트 에어벤더’ 노아 링어
10살때 태권도 시작 무술실력 뛰어나
경쟁률 2500:1 캐스팅… 판타지물 완벽 소화

‘그랑프리’ 박사랑
어려운 제주도 사투리 감칠맛나게 소화
앙증맞은 연기 돋보여



◀‘라스트 에어벤더’ 노아 링어

‘영화 흥행, 우리에게 맡겨줘요.’

영화 ‘집으로’를 통해 깊은 인상을 남겼고, 지금은 ‘국민 남동생’이 된 유승호, 2008년 흥행 대박을 터트렸던 강형철 감독의 ‘과속 스캔들’에 출연했던 왕석현,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주인공 등 아역배우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배우들은 많았다.

최근 들어 영화를 빛내는 아역 배우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관객 4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는 영화 ‘아저씨’의 주인공은 뛰어난 역션 연기를 보여주는 원빈. 하지만 이 영화에서 ‘아저씨’ 원빈에 밀리지 않고, 톡톡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배우가 바로 ‘소미’ 역을 맡은 김새론이다.

여느 아역배우들처럼 매끈하게 다듬어진 능수능란한 연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때묻지 않은 날 것의 연기가 깊은 울림을 준다.

자신이 믿는 ‘아저씨’를 향한 소미의 절절한 마음을 맑고 애절한 눈빛과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김새론의 연기는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김새론은 지난해 영화 ‘여행자’를 통해 연기를 시작한 신인이다.

아버지에게 버림 받은 아홉살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우니 르콩드 감독의 ‘여행자’에서 섬세한 감정 표현을 보여준 김새론은 이 영화로 제62회 칸 국제영화제 공식 부문에 초청받았었다.

칸 영화제 초청 당시 ‘스크린 인터내셔널’, ‘버라이어티’ 등 해외 언론의 극찬과 관심을 받고 칸 영화제 공식 데일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도 했던 김새론은 ‘한국의 다코다 패닝’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었다.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판타지물 ‘라스트 에어벤더’에서는 아역배우 노아 링어이 활약이 눈부시다.

‘식스 센스’의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에서 물, 불, 흙, 바람을 모두 지배할 수 있는 아바타의 운명을 타고난 에벤더 역할을 맡은 노아 링어는 이 영화에서 뛰어난 무술 실력을 보여준다.

2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된 노아 링어는 미국 태권도협회 텍사스 챔피언으로 10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다. 이번 출연 역시 태권도 사범이 파라마운트가 유단자 소년을 맡는다는 광고를 보고 추천해 발탁되게 됐다.

노아 링어의 차기작도 이미 정해졌다. 노아 링어는 존 파브로 감독의 신작 ‘카우보이 & 에일리언’에 캐스팅 돼 해리슨 포드, 대니얼 크레이그와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오는 9월 16일 개봉 예정인 ‘그랑프리’에도 아역배우가 눈에 띈다.

‘그랑프리’는 사고로 말을 잃고 좌절에 빠진 기수 서주희가 새로운 경주마 ‘탐라’와 자신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이우석과 함께 여기수 최초 그랑프리 우승에 도전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

이 작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박사랑은 제주도에서 말을 키우는 할아버지 ‘만출’(박근형 분)과 함께 사는 소녀 ‘소심’역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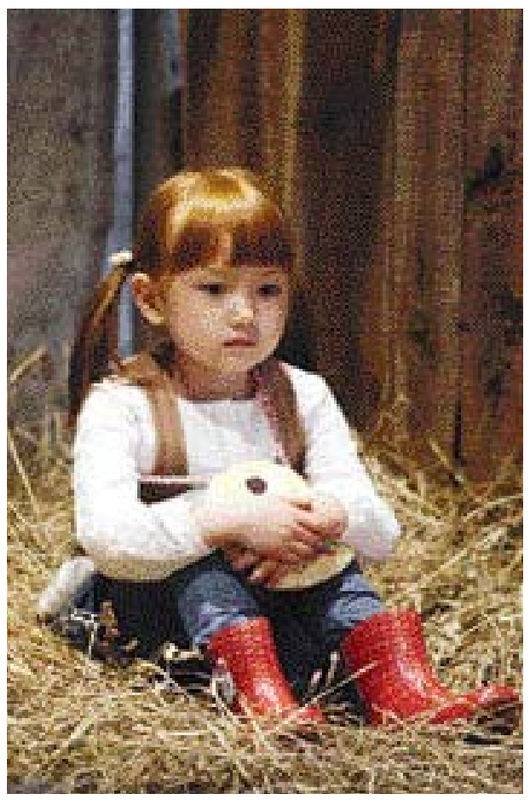
‘만출’이 키우고 있는 말 ‘탐라’를 끔찍이 아끼고 언젠가는 ‘탐라’가 자신을 엄마에게 데려다 줄 거라고 믿는 귀여운 소녀로 특히 ‘소심’은 주희 역을 맡은 김태희가 우석 역의 양동근을 향한 향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요한 인물이다.

연기 초보자인 박사랑은 특히 인형 같은 외모와 애교로 촬영 현장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했으며 어려운 제주도 사투리를 감칠맛나게 소화하는 등 앙증맞은 연기를 보여줬다는 후문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저씨’ 김새론

▼‘그랑프리’ 박사랑



새영화

‘죽이고 싶은’
다른 기억을 가진 두남자의 복수극
스릴러지만 블랙 코미디 색채 강해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두 남자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를 그린 스릴러물로 블랙 코미디 색채가 많이 가미됐다. 2인용 병실에 입원한 전신마비 환자 두 사람이 서로를 죽이기 위해 숙명의 대결을 펼친다는 독특한 설정이 눈길을 끈다.

뇌졸중 환자인 민호는 틈만 나면 자살을 시도하는 골칫거리 환자다. 어느날 같은 병실을 쓰게 될 환자로 들어온 상업을 본 민호는 살기로 결심한다. 상업이 수십 년 전 자신의 여자 친구 수진을 죽였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 재활 훈련에 힘쓴다.

하지만 점차 마비가 풀리면서 기억을 되찾은 상업은 민호가 자신이 사랑한 여자를 죽인 사람이라고 우기는데….

뛰어난 연기력의 천호진과 유해진 두 배우가 만들어내는 연기 앙상블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은 영화다. TV 드라마에서 활발한 활동중인 서효림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